

# 프론트엔드 입문과 1년

1년동안 무엇을 했나요?



# 저의 소개

- 전자공학과
  - 졸업작품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겼고, 납땀이 싫어짐 (웁)
  - 프론트엔드 개발을 열심히 공부 중 (약 1년째)
- 
- 42서울 카뎈트로 활동 중
  - 부스트캠프 웹·모바일 7기 어제 수료 (따끈따끈)
  - 토요일 모각코 열심히 참석 중



# 최초의 웹 개발 (?) - 나모 웹에디터

- 중학교 2학년
  - 내가 그린 그림을 모아두기 위한 홈페이지
  - 네이버 블로그는 식상하다!!
  - 나모 웹에디터 체험판을 무작정 설치, 제로보드 + 무료 호스팅
- 
- 한 달만에 체험판 만료로 UI 개선 불가능
  - 제로보드는 게시판 관리가 너무 어려웠다
  - 짧고 강렬한 홈페이지 제작 경험 끝



# 무작정 자바스크립트와 HTML, CSS 입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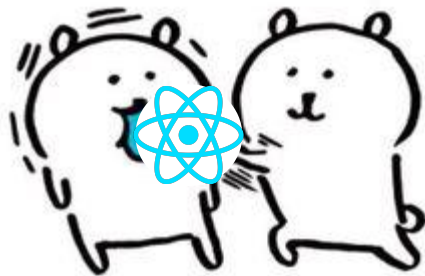
- HTML이라곤 싸이월드에서 달팽이를 움직이던 <marquee> 태그밖에 모르던 상태
- 인터넷 강의로 HTML, CSS, JS 시작, 기본적인 문법만 학습
- 이 상황에서 42서울에 카뎃으로 합격

|@\_

marquee 달팽이

# 첫 웹 프로젝트

- 2021년 10월, 웹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해 보자는 제의가 들어옴
  - 간단한 자바스크립트밖에 모르는 상태로 리액트 프로젝트에 참여
  -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프론트엔드 분의 코드를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연습...
  - useEffect? useState? Context API? 너무 어려웠다...
- 
- 해당 프로젝트는 백엔드의 DB 구조가 너무 복잡해졌고,  
당시의 팀으로는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**잠정 보류**



# 두 번째 웹 프로젝트

- 2021년 12월, 42서울 슬랙에서 팀원을 모집한다는 스레드에 무작정 댓글
- 여전히 React는 완전 초보, useEffect와 useState만 간신히 사용하는 상태
- 다른 기수 분들과 프론트엔드 2, 백엔드 2, 인프라 1의 구성으로 모이게 됨 (어색어색)

- react-router-dom, axios, mui 등 라이브러리를 처음 다뤄봄
- 코로나 이슈와 팀원 블랙홀 이슈 등이 겹침
- 42서울 공통과정 돌파 후 다시 모이자는 미명 하에 **잠정 보류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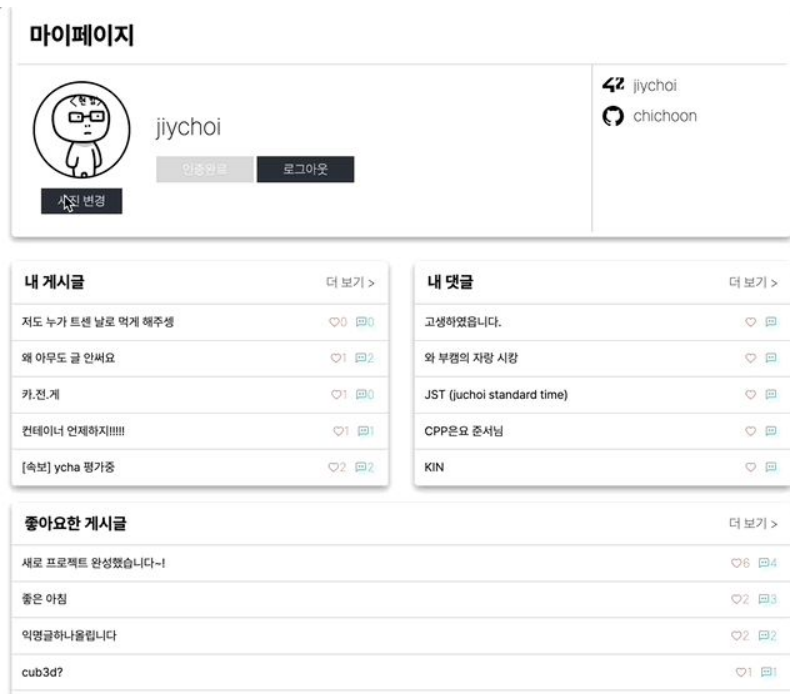
# 세 번째 웹 프로젝트 - 42World

- 2022년 3월, 첫 웹 프로젝트 때 같이 협업했던 프론트엔드 팀원분의 추천으로 합류
  - 합류한 시점에서는 팀에서 제일 React를 못 다루는 사람...
  - 모바일 버전 배포가 이미 끝나있었고, PC버전 개발을 시작하려던 상황
  - 버그 픽스를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사명감에 계속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남의 코드를 읽고 또 읽음
- 
- 최초의 버그픽스 및 머지까지 성공!!

- ☐  **Design: '자유게시판' 이 상단바를 뚫고 등장하는 현상 수정**  
#239 by chichoon was merged on Mar 20 • Approved
- ☐  **Fix: 게시물 작성 시 커서가 본문이 아닌 제목으로 가게 수정**  
#238 by chichoon was merged on Mar 20 • Approved
- ☐  **Design: 42logo 가장 최신버전으로 변경**  
#234 by chichoon was merged on Mar 18 • Approved
- ☐  **Design: 인증 완료 시 마우스 포인터 해제**  
#233 by chichoon was merged on Mar 15

# 세 번째 웹 프로젝트 - 42Worl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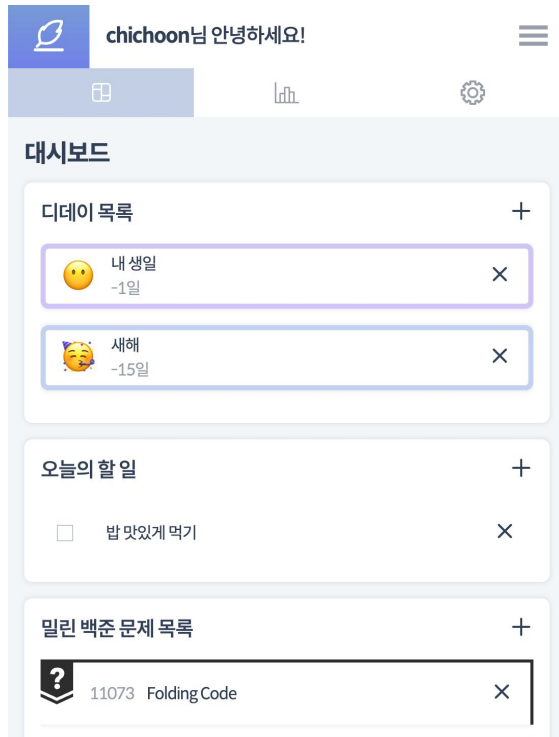
- PC버전 개발을 시작하면서, 마이페이지 전체의 로직과 레이아웃을 맡음
- PC버전 개발에는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는 압박이 존재
- 코드의 질은 좋지 않을 지 몰라도, 기능은 제대로 동작하는 페이지를 완성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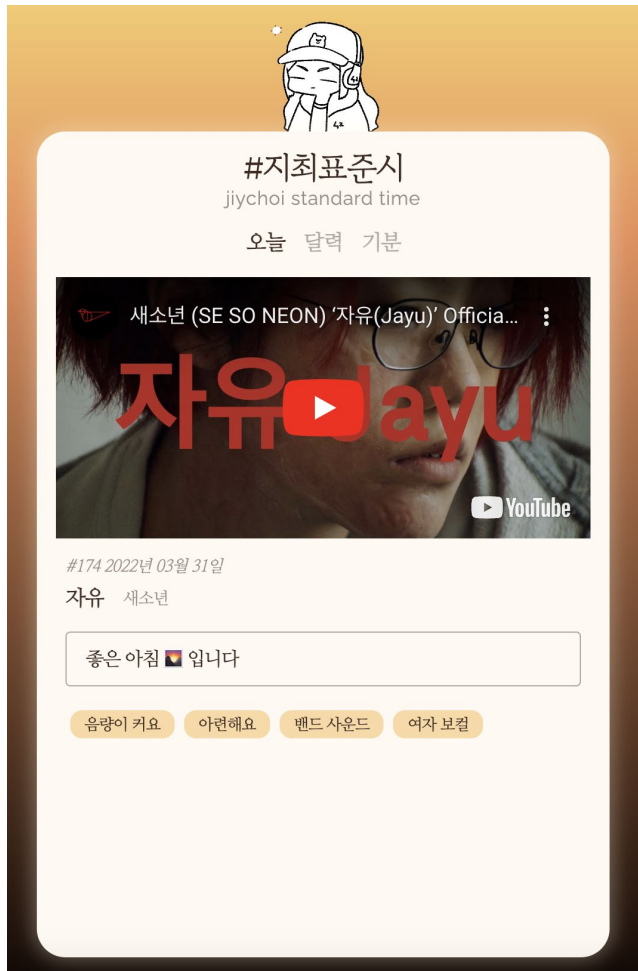
# 원티드 프리온보딩 참여

- 기술적인 공부가 필요한 상황
- 취업 연계는 기대 X, 커리큘럼만 보고 무작정 신청
- 2022년 5월부터 1달동안 그야말로 React & Typescript 만 폐관수련
- 반응형 디자인 (미디어 쿼리), React Query, Redux Toolkit, Recoil, Sass, lodash, eslint, prettier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린터 사용
-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...



# 개인 프로젝트에 도전

- 프리온보딩을 마치고 자신감 수직상승
- 일주일만에 서비스 배포할 수 있다! 라는 일념 하에  
2022년 6월, 1인 해커톤 (?) 시작
- 기획부터 배포까지 일주일만에 완료
- 다만 그만큼 시행착오나 기획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 
아쉬운 프로젝트
-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프로젝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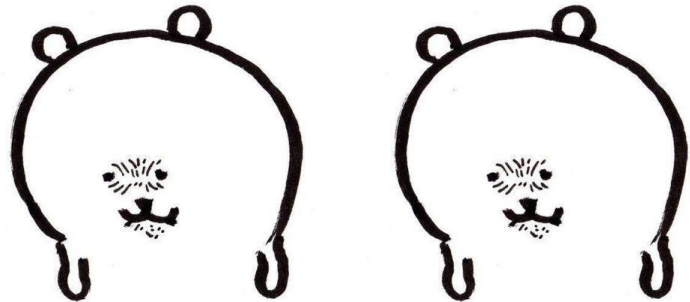
# 42World PC버전 리팩토링

- 프리온보딩이 끝나고 42World에 복귀하니 과거에 작성했던 코드에 안티패턴이나 깨끗하지 못한 부분 대량 발견
- (컴포넌트 안에서 컴포넌트 선언, 삼항 연산자 중첩, 함수 컴포넌트 return 문 안에 로직 작성 등)
- 대대적 리팩토링 및 타입스크립트로 전환
- 이 때를 기점으로 1인분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가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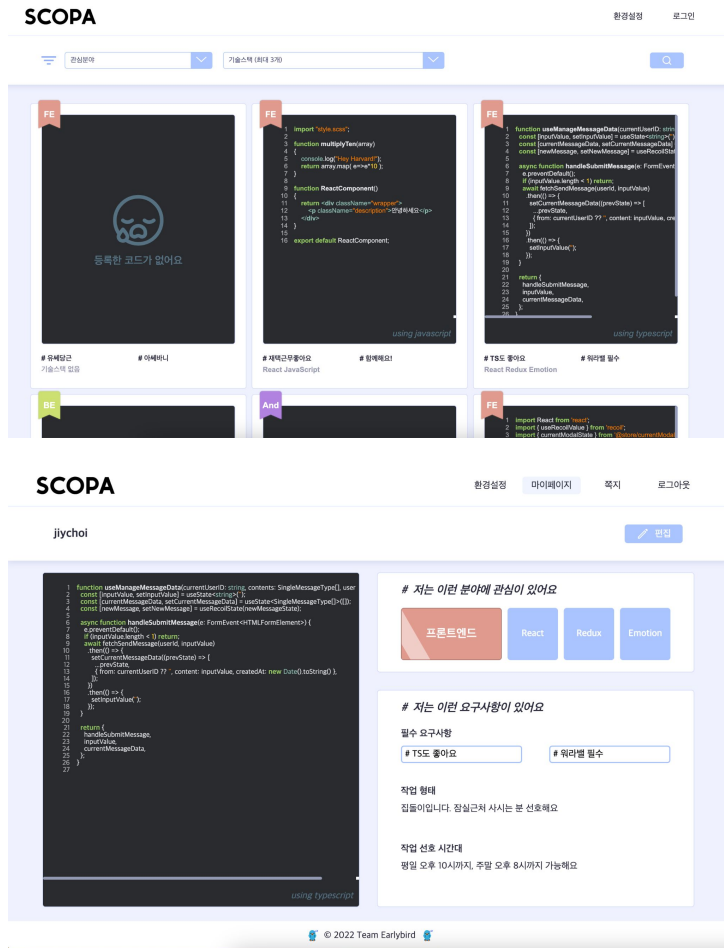
# 네이버 부스트캠프

- 2022년 7월, 부스트캠프 지원 기간이 시작되었다길래 지원
- 얼떨결에 합격
- 엄청난 실력자 분들, 굉장한 노력파 분들과 함께하게 됨 (공통분모도 많았음)
- 다시 “나 1인분은 할 수 있을까...?” 라며 자신감 하락
- 협업 방법론이나 디자인 패턴, 남이 읽기 쉬운 클린 코드 등 이론적인 부분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
- 혼란과 자괴감을 많이 겪고 멘토링도 종종 받음



# 네이버 부스트캠프

- 캠퍼분의 제의로 그룹 프로젝트 팀에 합류
- 기획부터 배포까지 6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해내야 함
- 자신과의 싸움...
- UI 디자인 개편, 로딩과 예외처리, 로그인 페이지 구현 및 OAuth 로그인 기능 추가, 상세 페이지나 환경설정 페이지 구성, 버그 리포트 받아 수정 등 프론트엔드 전반적인 기능 담당



# 네이버 부스트캠프

- 어제 프로젝트가 끝남 (드디어)
- 1인분 이상 했다는 성취감에 뿌듯
-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조금 미미해 보일지도..?
-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기획한 것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극한상황에 도전하는 느낌
- 끝나서 후련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시간



# 내년의 목표

- 사실 Next를 써보고 싶었어요
- 기존의 프로젝트 리팩토링
- 42서울 수료
- 본격적인 취업 준비



# 감사합니다

